

대형 보험사 직원 ‘부당해고’ 주장

광주고용청, 보험사기 적발 인정 ‘계약직’ 채용

근로계약서상 이달 말 평가 정규직 전환 조건

“사측서 코로나19 경영난 이유 구두 해고 통보”

대형 보험회사 직원이 부당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조사를 요구했다.

26일 광주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최근 모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조사실장으로 일했던 A씨가 ‘상사 3명과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경찰관 출신인 A씨는 공채에서 보험사기 사례를 적발·환수하는 조치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받아 지난해 8월 1일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근로계약서상 이달 말까지 근무

한 뒤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 받았다.

A씨는 진정서에서 “사측은 정규직 전환의 근거인 인사 평가(보험사기 조사·적발 건수 등 업적·역량 평가)를 하지 않았다. 보험사기 담당 상사들은 업무 수행 결과서에 대한 아무 검토 없이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회사 전체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 부서에서도 정규직

미전환 사유에 대한 근거 없이 계약 종료 통보했다. 사측은 근로기준법과 내부 인사 규칙을 위반했다. 의도적으로 업무서 배제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했고,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사측이 9월까지 보험사기 조사실장 상사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인 점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지역서 조사실장을 채용했고, 5월 중 다른 지역서도 면접이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코로나19로 아예 수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는 사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광주·호남권역 보험사기 조사실장에 합격했지만, 사측의 요청에 따라 최초 5개월 동안 서울에서 일했다. 광주에 가족이 있어 쉼터 교통·숙박비도 지원받지 못했다. 교통·숙박비 요구에 상사들

의 사적 감정이 투영된 게 아닌지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사는 해고 통보 한 달 전까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를 전까지 업무 결과물을 요청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고, 이는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최근 2년간 채용된 조사실장 4명은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진정 내용을 토대로 해당 보험사 측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과 조치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 명령을 내린다.

A씨는 다음 달 중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조국 딸 성적 모욕’ 일베 회원 4명 검찰 송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해 성적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명 일베) 회원 4명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6일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일베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께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당시 일베 사이트에 조씨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올려 인격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측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괄될 여지가 전혀 없는 중대하고, 매우 심각한 인격 침해 행위”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난 1월3일 고소장이 접수된 후 해당 사이트 등을 조사한 결과 4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 특정했다”며 “사건 관련자는 4명으로 추가 조사 대상자는 없다”고 말했다.

새벽 음주 후 경포 바다에 들어갔던 20대 숨져

26일 오전 3시49분께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씨마크호텔 앞 바다에서 A(24)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친구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강릉파출소 순찰팀이 오전 4시40분께 경포해수욕장 끝단에서 사고자를 발견하고 육상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어 3분 뒤 강릉소방서 구급차로 옮겨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해경 관계자는 “사망자가 일행 2명과 술을 마신 후 경포해수욕장을 찾았고 일행과 내기를 하다 바다에 들어가게 됐고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는 내려진 상황은 아니었지만 너울이 심해 파고의 높이는 2.0~2.5m였다.

순천경찰, 해외유입 자가격리 무단이탈 1명 기소

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해 7. 21.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발된 A씨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딸과 함께 입국해, 2주간 자기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음날 택배를 보내기 위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한 것을 자기격리안전보호협위치정보를 통해 적발되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월북한 20대 탈북민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아

군 당국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 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월북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관련해 월북한 이 탈북민 20대가 최근 김포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포시 양촌읍에 거주하는 탈북민 김모(23)씨가 지난달 탈북여성을 강간 혐의로 경찰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6월 개성에서 강화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개성에서 중학교까지 나왔고, 3년 전 한강 하구를 통해 탈북 후 김포에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전했다.

함평경찰, 장마철 ‘공사현장 특별점검’ 사고예방

공사구간 교통안전 특별점검으로 안전장치 제고



함평경찰서는 장마철을 맞아 관내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장마비로 인한 도로상 토사 유출 등 교통사고요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조치 강화 등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함평관내 공사 현장은 지방도인 해보면 금계지구 붕괴 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비롯한 국도1번 노상의 노후 교량(신동창교) 개설 공사 등 40여 개소의 크고 작은 공사 구간이

있다. 아울러 장마철 비바람으로 인해 훼손된 공사구간 교통안전표지와 경광등·플래쉬 왕카·발광형 델리네이터 등 야간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야광 시설물 상태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종열 서장은, “교통 및 지역 경찰 총 동원하여 관내 공사현장에 대해 특별점검 등 실시로 장마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여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국정지표 수행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광양경찰, 피서지 공중화장실 불법설치카메라 집중 점검 나서

선정적인 낙서·남녀 공간 미 분리 등 확인

광양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지난 5.6월 불법설치카메라 1차 점검에 이어 7, 8월 피서철을 대비한 피서지 등 공중화장실 2차 점검에 나섰다. 활동 내용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카메라 설치 흔적, 선정적인 낙서·남녀 공간 미 분리 등의 불안요소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1차 점검 시 불법설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속적 점검활동이 광양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에 일조하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 되었을 때 즉각 수사 착수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팀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번 2차 점검은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포스터를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제고 할 것이며, 언택트 방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을 통한 성범죄예방 홍보



보합동도 병행 할 것이다.

김현식 광양경찰서장은 “가나긴 코로나19로 지친 광양시민이 설상가상 범죄 피해까지 입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이번 여름휴가 기간 동안 범죄 없는 행복한 광양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